

그리스도인은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가?

본문: 야고보서 5: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본문에서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혀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가? 많은 사람이 성경을 문맥을 무시하고 문자만 딱 따서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이 있다.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주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라는 말만 딱 떼어서 생각하면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다음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의 뜻은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하는 맹세, 지킬 의사가 없이 그냥 가볍게 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켜야 할 맹세와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맹세에 대해서 가르쳤다. 유대인들은 성전,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지켜도 된다고 가르쳤다.

마태복음 23:16,18.

16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8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이 금이나 예물을 탐하는 탐욕적이라는 것을 책망 하셨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맹세하지 말라는 뜻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맹세, 하늘과 땅으로 하는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맹세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아예 지킬 의사가 없는, 맹세 안지켜도 되는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런 맹세는 거짓 된 맹세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맹세는 경배의 행위임으로 중요한 경우에 하나님 이름으로 행해야 한다.

신명기 6: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하여 강한 맹세를 하지만 실제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도가 없는 사람은 맹세를 아주 쉽게 한다. 맹세를 하고 안지키면 큰 일 날 것처럼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맹세를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본문에서도 “정죄 받음을 면하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 잘 못된 맹세를 하게 되면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잘 못된 맹세는 반드시 심

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킬 의사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맹세도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맹세를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그의 좋은 예로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

마태복음 26:33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고 장담을 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

그리스인의 삶에 있어서 진실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믿음이 진실 해야 구원을 받고 사랑이 진실해야 사랑이 역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말하면 그것이 종이에 쓰고 도장을 찍는 것 보다도 더 신빙성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서 매우 신임을 얻고 존경을 받을 것이다. 맹세란 반드시 지켜야 할 서약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맹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맹세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성경은 맹세 자체를 결코 금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 보낼 때 맹세하게 했다(창세기 24:2-9).

하나님도 맹세하셨다.

예레미야 44:26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창세기 22: 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예수님께서도 맹세 하셨다.

마태복음 26:63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2:11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히브리서 6: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또한 성경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 곳이 많이 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전 5:4).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민 30:2).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신 23:21).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맹세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맹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다시 말하면 ”예“와 ”아니요“가 분명해야 한다. 평소에도 언제나 예라고 했으면 항상 예하면서 살아야 하고 ”아니요“ 라고 했으면 항상 아니요를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을 평소에도 예와 아니요가 분명해서 한번 ”예“했으면 죽는 일이 있더라도 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한번 예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예라고 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사람들이 믿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예와 아니요를 잘하는가? 그러나 그대로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한 두가지 굳은 맹세는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그 맹세대로 살고자 하는 한 두 가지 맹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맹세를 했으면 항상 그 맹세를 기억하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바울 같은 사람은 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고린도 전서 2:2). 그리고 평생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난 후 세 가지 결심(맹세)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결심(맹세)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다.

첫째는 마태복음 6:33 절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대학 시절 수양회에서 이원설 박사와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분이 어린 시절 월남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간증하면서 이 말씀이 그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해 주었다. 당시 나는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이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생을 살기로 굳게 맹세했다. 이 말씀대로 삶으로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 져 주신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둘째는 에스라의 삶을 살기로 맹세했다.

에스라 7: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리스도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내 일생을 바치기로 굳게 맹세했다. 그래서 말씀 연구와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증거되도록 기도를 많이 한다. 지금도 은퇴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고 유두부로 말씀 강해를 하고 있다.

셋째는 사도행전 1:8 말씀을 이루기로 맹세를 했다.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캠퍼스 복음화와 성서 한국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나는 ESF를 세웠고 온마음교회를 세웠다. 이 두 단체를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을 전도했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고, 많은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세계 각지에서 한국에 유학하러 온 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전도하기 위하여 성경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또한 나와 같은 비전을 같이할 동역자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요 맹세이다.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다. 나는 여러분 모두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일생을 살기를 간곡히 권면한다.